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제22권 2호 (2021. 5) pp. 53~64 https://doi.org/10.35133/kssche.20210531.05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Vol. 22 Iss. 2 (May, 2021)

여대생의 결혼관 및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지역 일부 여대생을 중심으로

소미현*† · 강현숙**
*,**수원여자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Factors Affecting the View of marriage and Intention to marriage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Mi-Hyun So*† · Hyun-Sook Kang**
*,**Assistance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won Women's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factors having effects on the view of marriage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also to present the reference data for establishing the measures for having the positive view of marriage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Method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otal 254 female university students of two universities in Gyeonggi region, from October 1st to November 13th 202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Results: First, to the question related to the intent to marry, total 70% of them responded that they had intent to marry. In the time of marriage, they said they would marry when getting financially stable. The 30% of subjects said that they would choose non-marriage because they wanted to continuously enjoy free life and they did not want to bear burden related to childbirth and child-rearing.

Second, in the results of analyzing differences in the view of marriag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students with intent to marry showed the higher romantic view of marriage, instrumental view of marriage, and exclusive view of marriage than the students without intent to marry, which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Third, the view of marriage were the factors having the greatest effects on the intent to marry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Conclusion: Based on such results of this study, it would be necessary to focus on the

* 본 연구는 2020년도 수원여자대학교 순수연구과제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접수일 : 2021년 01월 22일, 수정일 : 2021년 03월 06일, 채택일 : 2021년 03월 09일
교신저자 : 소미현(1663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온정로 72)
Tel: 031-290-8259, Fax: 031-290-8248, E-mail: somh0607@swc.ac.kr

policies that could positively change the view of marriage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It would be needed to establish the social · institutional support measures for work-life balance by reducing women's burden of childbirth and child-rearing. To the question about the time of marriage, the most subjects responded that they would do so when the economic ability and stable job were equipped. Thus, there should be the systematic youth employment support system that could help the students to quickly and stably enter society and to become financially independent after graduation. Also, for the formation of positive family rela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 operate the educational programs for forming positive family relation and desirable communication methods for each subject(spouse, parents, children, siblings, and etc.).

Key words: Family relation, Financial stress, Intent to marry, View of marriage

Ⅰ. 서론

최근 여성의 사회적 진출 기회가 많아지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자아실현과 자기계발 욕구 및 양성평등 의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높아진 경제력으로 생활 가치관도 변화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특히, 가족과 관련한 사회 · 경제적 변화는 한국인의 결혼패턴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초혼 연령 및 비혼율의 증가 추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혼인통계 보고에 의하면 초혼 연령은 여성이 평균 30.6세, 남성이 평균 33.4세로 과거 2009년 여성 28.7세, 남성 31.6세와 비교하면 무려 약 2세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 건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9년 23만 9천 2백 건으로 전년 대비 18천 4백 건이 감소했다. 또한 혼인건수 감소와 더불어 2019년 총 출생아 수는 30만 2천 7백 명으로 전년보다 7.4%, 합계출산율은 1.0명 이하로 감소하였다(통계청, 2020).

이처럼 비혼 증가와 저출산 문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생산인구의 감소, 경제적 위축, 세대간의 갈등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G. V. Jones, 2009). 그러므로 건강한 가족관 형성의 시작이 되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확립과 이를 통해 실제 결혼 이행을 높이는 일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결혼관은 결혼 및 배우자 선택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의미하며, 애정과 사회문화 · 경제적 특성 등이 내재된 복합적인 가치관으로(박은주와 전형미, 2011), 결혼의 이행, 배우자의 선택과 결혼 후의 가정설계 등 가족 가치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재순과 염순교, 2015). 또한 결혼관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성인기 초기부터 누적되는 개인의 가치관으로 긍정적인 결혼관 함양을 위한 교육적 접근은 청년기부터 적극적인 중재와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오원옥, 2009).

특히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는 주도적이고 책임감을 지닌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단계로, 자유로운 이성 교제를 통해 배우자를 선택하고 가족과 결혼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권인숙, 2003; 김미현, 2009). 이 시기에 형성된 긍정적인 결혼관은 미래 결혼생활과 자녀 양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박은주와 전형미, 2011). 그러나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는 대학생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개인의 성장, 정서적 안정성 등에 대한 결혼관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한누리와 문혁준, 2015),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결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김남조와 고상진, 2018). 성별 외에도 결혼관은 연령,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부부관계, 학년과 관련이 있으며, 종교, 경제적 수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은수, 2007; 김미현, 2009; 박은주와 전형미, 2011; 이소영, 2011; 한누리와 문혁준, 2015).

한편, 결혼의향은 개인이 자신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결혼을 선택 또는 결혼을 하려는 의지를 의미하며, 결혼 진입에 결혼의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임선영과 박주희, 2014; 진미정, 2010). 과거에 비해 사회적 규범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결혼이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 여겨지며 일반적인 결혼관이나 결혼 태도보다 실제 결혼 이행과 관련이 더 깊기 때문이다(권소영 등, 2017; 진미정, 2010). 이러한 결혼의향은 결혼관뿐만 아니라, 연령, 사회·경제적 특성(교육 및 경제적 수준 등), 부모와 관련한 가족 배경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임선영과 박주희, 2014; 권소영 등, 2017).

이처럼 결혼관은 연령, 부모관계, 부모의 부부관계, 경제적 수준 등과 관련성을 보이고, 결혼의향은 결혼관과 연령, 교육 및 경제적수준, 부모와의 가족배경이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그간 진행된 연구들은 개인과 관련된 단편적인 변인들과 결혼관 또는 결혼의향에 대한 관련성 분석 및 영향요인 분석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의 비혼과 만혼의 문제는 가족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비혼이나 결혼연기의 이유에 근래 전반적인 경제 및 취업상황 악화로 인해 결혼을 진행할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부분도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기에(임선영과 박주희, 2014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관계와 재무스트레스 등 개인을 둘러싼 배경요인을 포함한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대생들의 긍정적인 결혼관을 확립하고 결혼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천적·교육적 접근이 필요한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경기 일부 지역에 소재한 2개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 중 만 19세 이상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모집단은 편의표본 추출하여 본 연구자가 소속된 1개 대학과, 경기지역 1개 전문대학을 추가 섭외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를 희망한 여대생은 1학년 78명, 2학년 102명, 3학년 74명 총 254명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며 모든 응답결과를 본 연구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α=.05, 중간수준효과 0.15, power 1-β=.95를 유지하는데 본 연구에서 필요한 최소 표본 수 184명을 충족하였다. 설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자발적으로 동의·참여 의사를 밝힌 여대생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하는 도중이라도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며, 수집된 정보는 본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암호화된 연구자의 컴퓨터에 보관하여, 연구종료 3년 후 모든 자료를 폐기함을 충분히 명시함으로써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자 하였다.

2. 연구도구

1)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 학년, 주거형태(가족동거, 독거), 주관적 경제적 수준, 부모의 현재 결혼상태를 묻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결혼관

결혼관의 척도는 원아름(2015)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안정-낭만적 결혼관' 7문항, '보수-도구적 결혼관' 5문항, '소극-배타적 결혼관' 8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되, 부정적인 질문은 역채점하여 합산하였다. 합산 총점의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관에 대해 긍정적임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0.691이었다.

3) 결혼의향

결혼의향에 대한 질문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결혼할 의향이 있다면 결혼 시기는 언제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비혼을 선택한 사유는 무엇이며, 비혼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가족관계

가족관계는 Hudson(1997)이 개발한 총 25개의 문항으로 보완하여 구성하였는데, 리커트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7점'으로 평정하고 부정적인 질문은 역채점하였다.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한 후 총점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긍정적임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0.752이었다.

5) 재무스트레스

일상생활에서 재무 상황과 관련해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경험정도를 측정하는 재무 스트레스는 이지혜(2014)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0.801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결혼의향에 대한 응답률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 가족관계 및 재무 스트레스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ANOVA test 후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해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결혼관 및 결혼의향과 주요 하위요인과의 관련성은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 가족관계 및 재무스트레스 차이

1-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안정 · 낭만, 보수 · 도구, 소극 · 배타)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결혼관은 연령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안정 · 낭만적 결혼관은 21세 미만보다 21세 이상 연령대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다($p<.01$). 결혼의향의 유무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에서는 결혼의향이 있는 대상자의 안정 · 낭만적 결혼관, 보수 · 도구적 결혼관, 소극 · 배타적 결혼관이 높은 결과를 보이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학년별로는 안정 · 낭만적 결혼관은 1학년보다 2학년이 1, 2학년보다는 3학년의 결혼관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소극 배타적 결혼관은 2, 3학년보다 1학년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p<.01$). 소극 · 배타적 결혼관은 부모의 결혼상태와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가 사별

한 경우에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Table 1-1〉 Romantic view of marriage, instrumental view of marriage, exclusive view of marriage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54

Division		n	Romantic view of marriage		Instrumental view of marriage		Exclusive view of marriage	
			M±SD	t/f	M±SD	t/f	M±SD	t/f
Age	〈21	128	23.32±3.94	-3.242**	12.79±3.37	-.897	22.31±4.05	1.482
	21≤	126	24.93±3.96		13.19±3.75		21.44±5.21	
Intention of marriage	Yes	178	25.17±3.58	6.911**	13.75±3.44	5.511**	23.02±4.14	6.437**
	No	76	21.67±3.96		11.21±3.21		19.19±4.76	
Grade	1st grade	78	21.19±2.70[a]	42.616**	12.32±3.20	2.897	23.93±3.30[a]	14.869**
	2nd grade	102	24.89±3.71[b]		13.00±3.75		20.29±4.84[b]	
	3rd grade	74	26.16±3.89[bc]		13.70±3.56		21.90±4.87[bc]	
Cohabitation type	Live with family	227	24.16±4.00	.225	13.01±3.48	.078	21.70±4.55	2.932
	live alone	27	23.77±4.29		12.81±4.21		23.33±5.47	
marital status of parents	First marriage	184	24.16±3.99	.295	13.03±3.61	.164	22.85±5.04	3.628*
	Divorce	61	24.16±4.35		12.95±3.54		21.71±4.49	
	bereavement	9	23.11±2.02		12.33±2.95		18.66±4.41	
Economic level	Low	91	23.64±4.09	1.504	12.52±3.31	1.480	21.78±4.41[a]	.422*
	Moderate	131	24.23±4.13		13.16±3.62		21.77±5.08[b]	
	High	32	25.03±3.19		13.65±3.92		22.59±3.60[c]	

*p<.05, **p<.01

1-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 및 재무스트레스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와 재무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재무 스트레스는 연령, 학년, 부모 결혼 상태, 경제적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이 21세 이상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1학년보다 2학년이, 1, 2학년보다 3학년의 재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p<.01). 부모의 결혼상태가 초혼보다는 이혼일 때 높았고, 사별인 경우에 가장 높았다(p<.05). 또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재무 스트레스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p<.01).

〈Table 1-2〉 Family relationship, financial stres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54

Division		n	Family relationship		Financial stress	
			M±SD	t/f	M±SD	t/f
Age	〈21	128	78.07±16.83	.498	18.19±4.96	-4.372**
	21≤	126	76.99±17.67		21.04±5.42	
Grade	1st grade	78	78.08±15.76	1.582	17.97±4.41a	12.320**
	2nd grade	102	75.36±18.07		19.12±5.11ab	
	3rd grade	74	79.94±17.36		22.00±5.88c	
Cohabitation type	Live with family	227	77.69±16.92	.185	19.44±5.39	2.133
	live alone	27	76.18±19.94		21.03±5.17	
marital status of parents	First marriage	184	78.32±17.26	1.769	18.94±5.10a	5.675*
	Divorce	61	76.60±16.83		21.18±6.02b	
	bereavement	9	67.66±17.67		22.66±2.78c	
Economic level	Low	91	76.87±18.02	1.709	22.92±5.39a	38.121**
	Moderate	131	76.70±16.68		18.23±4.19b	
	High	32	82.78±16.72		15.81±4.78c	

*p〈.05, **p〈.01

2. 결혼의향과 적정 시기, 비혼 사유

연구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0.1%가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9.9%는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결혼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중 결혼은 언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39.8%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때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결혼할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라는 응답이 18.5%,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한 이후”라는 응답은 14.2%, “조건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언제든지”가 2.8%순으로 조사되었다. 결혼할 의향이 없는 대상자에게 결혼할 의사가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자녀출산 및 양육 부담감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18.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부장적인 가족문화가 싫어서”라는 답변이 11.5%로 조사되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답변도 6.9%의 응답 결과를 보였다.

〈Table 2〉 Intent to marriage, reasons for non-marriage and requirements for non-marriage

n=254

Division		frequency	%
Intent to marriage	Yes	178	70.1
	No	76	29.9
	Total	254	100.0
Time to married	After getting a steady job	36	14.2
	Time of economic stability	101	39.8
	Whenever I see a good person	47	18.5
	Whenever I meet someone who meets the conditions	7	2.8
	Other, non-response	63	24.7
	Total	254	100.0
Reasons for non-marriage	Just don't want to get married	12	2.9
	For a free life	75	18.4
	The burden of child birth and child rearing	75	18.4
	Difficult to do both work and family life	38	9.3
	limits to self-improvement	38	9.3
	Don't like patriarchal family culture	47	11.5
	The burden of supporting one's family	26	6.4
	Not the right person to live with someone	28	6.9
	Other	68	16.9
	Total	407	100.0
Requirements for non-marriage	Economic capacity	206	41.6
	Stable job	117	23.6
	Close friend or family	79	16.0
	Hobby activities	39	7.9
	Independent character	53	10.7
	Other	1	0.2
	Total	495	100.0

Reasons for non-marriage and requirements for non-marriage are multiple response result

3. 결혼관 및 결혼의향과 주요 하위변수와의 관련성

연구대상자의 결혼관 및 결혼의향과 연령, 재무스트레스, 가족관계, 경제적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결혼의향은 결혼관(r=.542, p<.01)과 큰 상관성을 보였으며, 결혼관과 연령(r=.139, p<.01), 가족관계(r=.126, p<.01), 경제적 수준(r=.136, p<.01)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결혼관은 연령, 가족관계 및 경제적 수준과 정(+)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결혼의향은 결혼관과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의 연령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연구대상자의 결혼관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며, 결혼관이 긍정적일수록 결혼할 의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view on marriage and major variable

n=254

Variable	View on marriage	Intent to marriage	Age	Financial stress	Family relationship	Economic level
View on marriage	1					
Intent to marriage	.542**	1				
Age	.139**	.112	1			
Financial stress	.007	.054	.214**	1		
Family relationship	.126*	.058	-.043	-.194**	1	
Economic level	.136*	.038	-.073	-.492**	0.36	1

*p〈.05, **p〈.01

4. 여대생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대생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Cox & Snell의 결정계수(R^2)는 22.8%로 나타났으며, Nagelkerke의 결정 계수(R^2)도 32.4%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대생의 결혼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관(2.546)으로, 결혼의향이 없는 여대생보다 결혼의향이 있는 여대생의 결혼관이 12.75(Exp(B))배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ed the intent to marriage

n=254

Independent variable		B	S.E.	Sig.	Odd Ratio	95% C.I
(Constant)		-2.028	.540	.000		
Age	〈21	-.011	.321	.972	.989	.527-1.854
	21≤	1				
Economic level	Low	-.492	.586	.400	.611	.194-1.926
	Moderate	.108	.360	.764	1.114	.550-2.255
	High	1				
Family relationship	High	-.418	.322	.195	.659	.350-1.239
	Low	1				
Financial stress	Low	-.626	.352	.076	.535	.268-1.066
	High	1				
view of marriage	High	2.546	.395	.000**	12.751	5.876-27.670
	Low	1				

**p〈.01

Ⅳ. 논의

본 연구는 여대생의 결혼관과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시도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결혼의향은 결혼 희망 여부에 대한 생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실제 결혼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임선영과 박주희, 2014). 연구대상자에게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1%가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결혼 적정시기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때 하는 것이 좋다(39.8%)”고 응답하여, 강성훈과 주성희(2018)의 결혼의 조건에 대한 조사에서 성별, 연령과 관련 없이 모두 취업한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후에 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결혼 적정 시기에 대해서는 “결혼할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면”이라는 응답도 18.5%나 차지해 경제적인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관계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연구대상자의 30%가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사유로는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자녀출산 및 양육 부담감 때문(18.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자신만의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의하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여성들의 결혼의향을 결정짓는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산업화, 도시화로 여성들의 교육수준 및 사회활동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로 인해 많은 미혼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미혼여성이 결혼을 꺼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기보다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육아기의 의료비 지원 확대, 부모의 직장 근처 자녀돌봄 보육서비스 기관의 확충, 육아기 탄력근무의 자유로운 활용, 남성의 육아참여 증대 등이 필요해 보이나 이러한 대책은 개인의 요구와 노력에 의한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일·가족 양립정책을 2006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고용환경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에 안정적으로 제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적정 결혼 시기에 대한 질문에도 결혼은 경제적인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해야 한다(39.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0.7%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통계청, 2020). 따라서 청년층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취업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다각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는 단순 청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업 선택, 직업 능력 개발과 향상 등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한 대책이 펼쳐지고 있으며, 프랑스는 장기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전과 탐색의 기회를 확대 부여하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25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이나 정규직 청년을 고용했을 때에 최대 정해진 지원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김주일, 2018), 우리나라의 육아정책연구소(2016) 연구 결과에서도 68.8%의 응답자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결혼시기를 앞당기는데 도움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결과를 보여 이러한 지원방안을 적용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다른 선

진국과 같이 청년들 각자가 본인의 능력을 개발·향상시키는 과정을 통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매칭시키고, 오랜기간 근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여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대상자의 결혼의향 유무에 따른 세부 결혼관의 차이 분석결과 결혼의향이 있는 대상자의 안정·낭만적 결혼관, 보수·도구적 결혼관, 소극·배타적 결혼관이 높은 결과를 보이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이는 김혜영과 선보영(2011)의 여성들이 결혼의 낭만적, 정서적 측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결혼은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결혼이 가지고 있는 도구적 기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미와 기능은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소극·배타적 결혼관은 부모의 결혼 상태와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가 이혼을 하고 사별한 경우와,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이는 미혼자녀가 부모의 부부관계를 긍정적이고 민주적인 부모 관계라고 인식할수록 결혼관과 출산의지도 긍정적이나, 부모의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고 권위적인 관계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조은수(2007), 한누리와 문혁준(201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며, 가정 안에서 부부 상호간의 합리적인 신뢰 관계의 유지와 행복한 부부생활은 그들의 미혼자녀의 결혼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한누리와 문혁준, 2015; 김남조와 고상진, 2018)에서는 여대생의 결혼관이 남학생에 비해서 부정적이라고 조사 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결혼의향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여대생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결혼 적정시기까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 또는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결혼의향과 결혼관($r=.542$)이 가장 큰 상관성을 보였으며, 최종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에서도 여대생의 결혼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관으로, 결혼의향이 없는 여대생보다 결혼의향이 있는 여대생의 결혼관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결혼의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혼관은 연령($r=.139$), 가족관계($r=.126$), 경제적 수준($r=.136$)과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선행연구에서도 가정의 분위기와 자녀의 긍정적인 결혼관이 관련이 있으며(권인숙, 2003), 결혼의식과 원가족 건강성(오원옥, 2009)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결혼관에 대한 접근 시에는 개인적인 요인과 함께 가족과 관련된 배경 요인까지도 고려되어야 하며, 가족간 공감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가족이해 및 의사소통법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운영된다면, 건강한 가족관계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결혼관을 형성하는데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이번 연구의 제한점으로 표본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 편의표본 추출방법으로 진행되어 여대생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크기 및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비혼 및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연구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여대생들의 긍정적인 결혼관을 확립하고 결혼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천적·교육적 접근이 필

요한지 모색해보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경기 일부 지역에 소재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254명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SPSS Program Versio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의향에 관련한 질문에 70.1%가 결혼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결혼 시기로는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비혼을 택한 29.9%의 대상자는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받고 싶지 않고, 자녀출산 및 양육 부담감 때문에 비혼을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결혼의향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 결혼의향이 있는 학생들이 안정·낭만적 결혼관, 보수·도구적 결혼관, 소극·배타적 결혼관 모두 결혼의향이 없는 학생보다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결혼의향은 연구대상자의 결혼관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며, 결혼관은 연구대상자의 연령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높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긍정적인 결혼관을 갖는 것이 여대생의 결혼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여대생의 결혼의향을 높이기 위해서 결혼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접근도 고려되어야 하겠다. 결혼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여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하는 제도가 아닌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여성의 자녀출산 및 양육 부담감을 줄여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청년 취업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각종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긍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 대상자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증진 및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도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1. 강성훈, 주성희. (2018). 부산지역 대학생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조사. 수산해양교육연구, 30(1), 217-226.
2. 김미현. (2009). 대학생의 원가족 심리적 특성과 성별이 결혼태도 및 자녀태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대전: 건양대학교 대학원.
3. 김남조, 고상진. (2018). 간호대학생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4), 178-185.
4. 김주일. (2016). *해외 선진국가의 청년 일자리 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 Retrived from https://seoulsolution.kr/sites/default/files/
5. 김혜영. 선보영. (2011). 여성의 만혼화와 결혼의향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12(2), 3-35.
6. 권인숙. (2003).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성의식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대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7. 권소영, 강시은, 엄세원, 박지수, 이재림. (2017). 청년 남녀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세대관계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4), 3-25.
8. 박재순, 염순교. (2015). 미혼 여성의 자아실현, 양성평등 의식과 결혼관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 17(3), 1633-1651.
9. 박은주, 전형미. (2011). 여대생의 직업의식이 결

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87-105.
10. 이소영. (2011).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과 부모와의 관계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연구[석사학위논문]. 김해: 인제대학교 대학원.
11. 이지혜, 주소현. (2013). 대학생의 재무스트레스와 재무지식 및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FP학회지, 6(4), 45-70.
12. 임선영, 박주희. (2014). 미혼자의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 제공 요소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177-193.
13. 오원옥. (2009). 대학생의 결혼의향, 원가족 건강성 및 성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5(2), 232-240.
14. 원아름. (2015).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과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15. 진미정. (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 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한국인구학회, 33(3), 31-51.
16. 조은수. (2007),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관 및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17. 최효미, 유해미, 김지현, 김태우. (2017).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18. 한누리, 문혁준. (2015).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아정체감과 부모의 부부관계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4(2), 205-218.
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여성가족패널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21. *2020 결혼 및 이혼통계.* (2020). Retrived from https://kosis.kr/statHtml
22. G. V. Jones. (2009). Delayed marriage and very 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3(3), 453-478.
23. Hudson, W. W. (1997). The WALMYR Assessment Scales Scoring Manual Tallahassee, FL: WALMYR Publishing Company.